

외계 행성에 가계 된 갑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개의 정책은 모
 두 D가 받을 보상이 제액 료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D가 가지
 게 될 보상의 크기나 다른 일원들 에 대한 보상 정도가 모두 다르
 다. (나)를 바탕으로 세 정책을 비교해보면, 정책 II은 정책 I에
 압도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역항 A, B, C, D 모두 정책 III보
 다 정책 I에서 더 큰 보상, 즉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만약 분배의 균등 정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역항 D를 제외
 한 일원들 에 대한 보상 정도가 동일한 정책 III이 매력적인 것이지
 만, 압도의 원리에 따르면 정책 II을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갑
 에게 있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을 가져온 것이다.
 정책 II은 제외하고 남은 두 정책을 분석해보자. 정책 I에서 는
 네 역항에 대한 보상의 총합이 제일 크. 뿐만 아니라 최소수혜자가
 받게 될 보상 또한 110으로 가장 크다. 정책 II은 최소수혜자에
 대한 보상이 70으로 가장 적은 대신 최선의 결과, 즉 최대의 수혜
 를 받는 D의 보상이 190으로 가장 크다. 그렇다면 무엇이 갑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최소극대하의 원리에 따라 최악의 결과, 즉 최소수혜자가 받는 보
 상이 최선인 정책 I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가)에서
 는 변재 파견대원들이 각자 미느 역항을 맡게 될지 모르는 어떤
 성에 놓여 있다. 즉, 운이 좋은 대원은 D를 맡겠지만 운이 나쁘다
 는 이유만으로 가장 적은 보상은 받는 역항을 맡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에서 언급하듯이 운에 따른 불평등을 최소화하여 불리
 함을 완화해야 한다. 우선, 대원들은 의계 행성에서 잠시 생활한 경
 무 어느 정도의 수혜가 그곳에서 견딜 만하게 해주게 될지에 대해
 아무 경험이 없기에 알 수 없다. 즉, 최악의 결과들이 모두 견딜
 만한 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악의 결과를
 비교하는 최소극대하의 원리에 따라 여러운 결과의 악률을 낮출 경
 책 I을 선택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에서 제시되었듯이 대원들은
 큰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무 수행을 위해 의계 행성에 가
 는 것이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보다는 최악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불운에 대한 불평등을 줄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원들에게 유사한
 선택의 기회가 또 될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당장 앞에 놓
 인 정책 선택 기회가 단 한 번이라는 생각에 최악의 결과에 관심
 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갑은 최소극대하의 원리에 따라 정책 I을
 선택해야 한다.

(가)에 제시된 선택의 문제는 갑이 파견된 외계 행성에서 A, B, C, D 중 하나를 맡게 될 것임을 알 뿐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3가지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 때 갑이 각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나)에 제시된 선택에 따른 각 상황에서 의 결과는 알지만 상황의 발생 확률은 모른다는 등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 경우에서 갑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압도의 원리를 적용해보자. 압도의 원리란 갑, 을의 경우처럼 결과를 알지만 발생 확률을 모를 시에 비합리적 선택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원리로 합리적 선택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선택을 도와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I, II, III을 살펴보면 정책 I과 II, 정책 II와 III은 각각 서로에게 이는 것도 다른 것에 의해 압도되지 않지만 정책 III은 I에 압도된다. 왜냐하면 한 상황에서 I가 II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은 비합리적 선택인 정책 II를 제외한 정책 I과 II 중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지만 둘 중 어떤 것을 고를지는 압도의 원리로 파악할 수 없다. 이 렇게 압도의 원리를 바탕으로 비합리적 선택을 제외한 후 정책 I과 II 중 합리적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압도의 원리와 같이 확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사용되는 최소극대화 원리와 최대극대화 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 4는 갑이 최대극대화 원리에 의거하여 정책 II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갑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는 최다보상이 보장된 역할 D 이기에 최선의 결과 중 특히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 II가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에 나타난 합리적 선택은 선택지의 결과, 개인의 상황, 잔여 선택지 등의 여부에 따라 수익성을 추구할지 안정성을 추구할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러한 (다)에 비추어 갑의 선택을 살펴볼 때 먼저 갑은 어려운 임무를 맡아 파견되는 파견대의 일원이란 점에서 각 선택지들, 즉 각 역할의 어려움 정도나 위험성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역할을 정하고 나머지 역할의 보상에 대해서도 논의 한다는 점에서 파견대원들 모두 합리적 선택 시 수익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어떤 선택지가 보장하는 몫에 만족한다면 정책 결정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갑이 선택한 역할을 중간에 바꿀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외계 행성을 개척할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국가의 파견대원이라면 이후에 충분히 도다준 외계 행성에 파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갑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갑은 최대극대화 원리에 의거한 정책 II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것이다.